

새기능 '관광'으로 부가가치 제고

## 높은 매력 자원 풍부 유망

해양리조트화 도모, 쾌적한 국민관광지 조성



김 재 민  
〈세종대 교수〉

오늘날 관광은 사람들의 여가시간의 활동으로서 생활의 한 현상이 되고 있으며, 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관광은 여가시간의 여행을 통한 활동과 경험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휴식과 기분전환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는 정신적인 재창조의 경험을 갖게되는 변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사물과 환경을 보고 여행의 경험을 추구한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관광을 통하여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경험을 함으로써 충족 할 수 있는 것이다.

관광은 프레저 트레블(pleasure travel)과 비지니지 트레블(business travel)로 분류되며, 더글러스 포스터는 프레

저 트레블의 여행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자연경관 혹은 인공적인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한 여행
- 취미와 특별한 흥미의 추구
- 휴식과 휴양
- 일상생활로 부터의 변화를 위한 욕구
- 외국 혹은 다른 문화를 배우기 위한 여행
- 이국적이고 진귀한 것을 찾는 여행
- 스포츠행사 참관
- 모험 및 도전적인 여행
- 문화관광
-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
- 종교적인 이유로서의 여행

관광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며, 자연적 관광자원과 문화적 관광자원 그리고 관광대상을 찾

아서 관광활동을 추구한다.

### 어항어촌 풍경의 관광 대상화

우리나라는 삼면이 해안을 형성하고 있으며, 바다와 해변의 자연경관은 관광자원의 매력성이 매우 높다.

해안관광자원은 푸른 바다와 백사장, 송림이 우거진 해변의 오솔길을 걷는 것은 여행의 낭만과 좋은 추억이 되며, 해안의 아름다운 경관과 기기묘묘한 해식단애를 안고 돌면 설새없이 밀려드는 파도소리가 해변의 정취를 더해 준다. 또한 해변의 해수욕장과 기암절벽 그리고 동해의 일출 광경과 서해의 낙조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다.

어항과 어촌은 수산업의 기지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과 문화적 관광자원, 산업시설 풍물 등의 관광대상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어항어촌풍경의 관광대상화는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고유한 풍물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며, 해안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항어촌 풍경은 한국어촌의 고유성과 풍물 그리고 어촌풍경을 관광객의 관광대상의 목적물이 되도록 가꾸는 일이다.

또한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모습과 양식어장, 바다낚시, 관광용 잠수함을 이용한 해저관찰, 해녀의 잠수작업 풍경 등이 도시인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관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의 경험을 하게된다.

이러한 어항어촌의 고유한 풍경과 풍물이 훌륭한 관광의 매력물이 되고

어항어촌 풍경은 한국어촌의 고유성과 풍물 그리고 어촌풍경을 관광객의 관광대상의 목적물이 되도록 가꾸는 일이다.

또한 근해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모습과 양식어장, 바다낚시, 관광용 잠수함을 이용한 해저관찰, 해녀의 잠수작업 풍경 등이 도시인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관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의 경험을 하게된다.

있다. 한편 국내 여행사들은 하계절에 해수욕장으로 피서객과 휴가자들을 운송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어항어촌을 관광목적지로 하는 여행상품의 개발이 요망된다. 즉 어항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관광 및 산업시찰도 할 수 있는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어항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관광어항, 관광어촌의 중점개발

우리나라 국민관광진흥시책의 일환으로서 해안지역에 위치한 어항과 어촌을 항만 및 어항시설 개발과 병행하여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개발방법이라고 하겠다.

어항과 항만은 주로 여객과 화물의 운송, 수산업 활동의 기지로서 발전되고 있지만 해변의 여가공간을 해안공원 혹은 해양리조트로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관광어항·관광어촌개발은 우리나라 해안에 산재하여 있는 어항어촌 중에서 역사성이 높은 어항, 위치적으로 적합한 지역을 관광어항 혹은 관광어촌으로 지정하고 어항시설과 어촌의 풍물을 보존·정비하고 해안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관광 어항어촌의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되어 어항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개발하는 방법과 어촌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함으로써 수산해양에 관한 행정이 일원화 되었으므로, 이제까지 타분야에 비하여 발전이 낙

후되었던 어항어촌을 국민관광지로 개발하여 어촌주민에게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일반국민에게는 휴양 및 레크레이션의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어항어촌지역을 해양리조트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소요자금을 확보하고 어촌지역의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항어촌의 관광대상은 부두, 해안 방파제, 등대, 선착장 등의 어항시설과

초가집 어가의 복원, 돛단배, 어선, 어구 등 어촌의 고유한 풍물이 특색있는 관광상품이다.

또한 해양수족관, 해산물판매점, 특색있는 생선메뉴의 개발, 그리고 「풍어굿」과 같은 민속공연이 관광어촌의 매력성을 한층 더 높힐 수 있다.

### 해안 관광시설과 관광활동 촉진

어항어촌지역을 휴가여행자와 관광객의 여행목적지가 되는 해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편의시설과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하여야

〈표 1〉 해안 관광시설의 내용

구 분	시 설 내 용
해 수 욕 장	백사장, 탈의장, 방파제, 다이빙대, 선박수리장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구호시설, 방송실, 미아보호소, 해상순찰선, 해안 청소시설
수상레크레이션시설	보트, 요트, 커누, 관광선, 수상스키, 폴장, 파도폴장, 유리보트, 낚시배
레크레이션시설	오락게임장, 어린이 놀이터, 노천극장, 유기장, 당구장
스 포 츠 시 설	정구장, 배구장, 축구장, 탁구장, 다목적 운동장, 조깅코스
관 램 시 설	해양박물관, 수족관, 식물원, 해중전망탑, 글라스보트
편 의 시 설	화장실, 탈의실, 욕실, 세탁장, 샤워장, 집회장소
숙 박 시 설	호텔, 여관, 민박, 국민숙사, 유스호스텔, 캠핑장
식당 및 쇼핑시설	식당, 다방, 주점, 카페, 매점, 상점가, 생선횃집
휴식 여가 공간	자연공원, 잔디밭, 산책로, 휴게소, 피크닉랜드, 벤취 등
교 통 시 설	철도역, 도로, 터미널, 주차장, 주유소, 공원도로

한다. 따라서 해안 관광시설은 휴가여행자와 관광객들이 각종 임해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알맞는 관광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해양리조트시설의 종류는 <표 1>과 같이 해수욕장 시설을 비롯하여 해변과 해상을 이용한 각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시설 등 여러가지 임해관광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 중에서 그 지역에서 이용도가 높고 개발이 용이하며, 특성을 살린 관광시설을 개발토록 한다.

해양리조트시설의 대표적 시설은 해수욕장이며, 해수욕장은 기후, 온도, 물의 수질과 수온, 태양, 백사장의 넓이와 경사도의 자연적인 입지조건이 중요시 된다.

즉, 해수욕장의 자원조건은 기후, 온도, 풍속, 일조 등의 기상조건과 파고, 수질 해저자원, 생물 등의 해상조건 그리고 해변의 넓이, 경사, 배후지, 하천 등의 지형조건을 검토한다.

해수욕장 조성의 기본형태는 해변도로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해변 중앙에 관리사무소와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실내오락장을 갖춘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고 백

사장 배후지에 피크닉장소와 각종 운동장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다목적 운동장, 배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야외게임장, 자연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또한 관광시설을 해양수족관, 휴양시설, 해상전망시설, 마리나(marina), 해상공원을 개발하고 관광잠수선, 유람선, 보트, 요트, 스쿠버다이

빙, 바다낚시 등의 다양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마리나 시설계획은 마리나항의 위치, 규모와 특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시설내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리나 시설은 요트, 보트, 유람선 등의 정박지로서 해안에 방파제를 조성하고 마리나항을 건설하여 충분한 선박 계류공간과 선박수선소, 급유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바다의 수면을 이용한 해상 이용계획은 수상스포츠와 레크레이션활동의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즉 요트, 윈드서핑은 속도가 느리지만 해상에서 활동반경이 넓기 때문에 해상의 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모터보트와 수상스키는 다른 수상스포츠와 수영구역과는 분리시켜야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다. 특히 모터보트와 같은 수상스포츠는 해상에서 일정한 수역을 설정하고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제도과 속도제한, 과속에 대한 규제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광객의 관광활동 촉진은 관광객이 어항어촌지역에 체재하는 동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활동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해변 가요축제, 바다낚시대회, 해산물 식도락축제, 해변수영학교, 해변청소년캠프를 계획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이러한 해양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에 참가 함으로써 관광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와같은 임해관광시설을 이용한 각종 스포츠와 관광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어항어촌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국민관광지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의 관광활동 촉진은 관광객이 어항어촌지역에 체재하는 동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활동에 참가토록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해변 가요축제, 바다낚시대회, 해산물 식도락축제, 해변수영학교, 해변청소년캠프를 계획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이러한 해양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에 참가 함으로써 관광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 어항어촌을 국민관광지로 개발

대규모 관광단지를 제외한 관광지를 일명 국민관광지라고 한다.

이러한 관광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하며, 개발 제한요소가 적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역의 관광특성에 따라 소규모 개발을 한 관광지이다. 즉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과 계곡, 호수, 해변 그리고 명승지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휴게소, 벤취 등의 편의시설을 공공사업으로 건설하고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한다.

관광지 개발현황은 1981년에 경기도 소요산, 마니산, 원천, 강원도 구곡폭포의 4개소가 개발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95년까지 기간에 전국적으로 총 114개소의 국민관광지를 개발하였다.

그 중에서 해안과 어항어촌지역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도 아산호, 서포리해수욕장, 충남 무창포, 안면도, 강원도 동해 망상해수욕장, 주문진해수욕장, 연곡해수욕장, 전남 영산호, 해남군 토달, 대광해수욕장, 울포해수욕장, 경북 포항송도, 울릉도, 경남 고성 당황포, 부산 해운대, 제주 함덕해안 등이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으나 이러한 해안지역의 개발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해안의 자연적 관광자원은 해안의 기암절벽과 단애, 해변의 수림과 백사장, 푸른바다와 어촌풍경이 특색을 지닌 관광자원이다. 또한 어항은 어선이 출항하고 입항하는 부두와 선착

장, 방파제, 등대, 기상측후소 등의 어항시설과 어시장 수산물 가공공장을 견학 할 수 있는 산업관광지이기도 하다.

어항어촌의 국민관광지 개발은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그리고 고유한 풍물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며, 관광시설과 숙박시설을 개발하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민박사업은 법률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정책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박사업은 어촌주민의 소득사업으로서 어촌 가계수입과 국민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차제에 해양수산부는 어항어촌 민박사업을 지원하는 행정, 금융면에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어항어촌의 관광지개발은 첫째로, 관광자원면에서 해안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휴식 및 여가공간 그리고 어촌의 고유한 풍물을 관광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관광의 매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어항어촌을 관광어항·관광어촌으로 지정하고 복원 및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셋째로, 해안관광시설과 해상스포츠 및 레크레이션시설을 고객의 이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개발하고 설치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촉진하도록 한다.

넷째로, 어항어촌지역이 일반 국민들의 휴식 및 관광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해양리조트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국민관광지로 가꾸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